

악취 풀풀 쓰레기 배출·수거 시간 정하자

미국·호주 등 선진국 밤 10시~오전 6시까지 제한

출근 시간 전 수거·청소 완료...쓰레기 노출 최소화

아파트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과 이를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시간이 불규칙해 주거 환경은 물론 공동위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아파트 등 공동주택들이 쓰레기 투기 시간대를 지정하지 않은 탓에 주민들이 수시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오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부주의로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흘리는 경우마저 있어 악취는 물론 위생에도 좋지 않다.

쓰레기 수거시간도 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오전 9시~11시 사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쾌적한 도시 환경과도 어울리지 않는 지적이다.

미국이나 호주 등 도시의 쾌적성을 중시하는 선진 도시들은 주민의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밤 10시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쓰레기 수거 시간은 출근 전인 새벽 6시까지로 정해 놓았다. 이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이동이나 노출 시간을 최대한 줄여 공중 위생을 지키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는 주민들이 밤 시간대에 쓰레기를 버리면→환경미화원은 새벽에 수거하고→아파트 청소원들이 아침 이른 시각에 엘리베이터와 통로 등 주변을 청소하는 시스템으로, 아예 쓰레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아파트들은 쓰레기 투기 및 수거에 대한 자체 규약을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규약이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하루 종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는 날이 많다. 예를 들어 아파트 아침 청소가 끝난 뒤, 한 주부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가 엘리베이터



에 흘리면 해당 라인의 주민들은 다음날 청소때까지 악취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회사원 정모(49·광주 북구 문흥동)씨는 "며칠전 출근 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흘려진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밟은 적이 있었다"면서 "출근길 운전하는 동안 신발에서 계속 악취가 났으며, 퇴근길에도

여전히 엘리베이터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환경 관리와 위생 차원에서 각 아파트들이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규정해야 하며, 광주시나 자치구는 수거 시간을 선진 방식으로 바꾸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을지훈련 최우수기관 선정

민·관·군 참여 불시훈련 호평

광주시가 '2014 을지연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1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다.

2014 을지연습은 지난 8월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간 광주시 일원에서 행정기관, 군부대, 지방경찰청, 공공기관, 중점관리 지정업체 등 112개 기관·단체 1만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윤장현 시장은 이번 을지연습에서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도상훈련에 그치지 말고 현장성과 실천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을 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전에 시간과 장소를 예고하지 않는 '불시훈련', 시민에게 시청 총무시설을 개방한 방방면 체험 교육 및 심폐소생술 훈련, 실제 훈련과 연계한 군 장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시민의 차별화된 훈련이 중앙에서 파견된 훈련 평가관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통령 기관표창은 윤장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7100여 명의 공직자, 31보병사단, 광주지방경찰청 등 민·관·군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비정규직 가장 큰 고민은 '임금'

광주시 상담 사례 발표회

산업재해·징계해도 많아

광주지역 비정규직 직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낮은 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광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상담 분석 결과,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임금 문제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 세미나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 발표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상담 통계와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의 업무협약한 기관의 사례, 퇴직금·해고·산재·아르바이트 인권 침해 등 실제 상담 내용별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이뤄진 비

정규직 노동상담은 총 462건(월 평균 42건)으로 상담 내용은 체불임금,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각종 임금 문제 관련 상담이 50.88%로 가장 많았고 산업재해 11.04%, 징계해도 8.16%, 근로계약 5.28%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영세한 고용업체의 근로조건과 고용주들이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담 방법으로는 전화상담이 60%, 출장 및 거리상담이 27%, 내방상담이 13% 순으로 상담 성격과 내용의 특성상 전화상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건수 중 29건이 사용주와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세월 잊은 백발의 검객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원장 이충의) 대강당에서 최태군(86)씨를 비롯한 23명의 검도반 회원들이 검도 승단 심사를 받고 있다.

〈노인건강타운 제공〉

광주 수출탑·유공 포상 기업 선정

올 100만불 수출 실적 28곳

호원 양진석 대표 금탑 훈장

광주지역에서 올해 100만불 이상 수출을 달성한 기업은 28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

협회가 주최하는 '제51회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탑과 유공포상을 수상할 광주지역 기업과 기업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출탑은 28개 기업이, 유공포상은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명이 수상한다.

수상 내역을 보면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인 (주)호원은 그동안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지난해 1억불 수출탑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는 2억불 수출탑을 수상하게 됐다.

자동차 부품 기업인 (주)동희하이테크는 TS16949 품질경영시스템 등 품질경영과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한 결과, 1억불 수출탑을 수상한다.

이와 함께 5000만불 1개사, 3000만불 2개사, 2000만불 1개사, 1000만불 3개사, 500만불 5개사, 300만불 4개사, 100만불

10개사가 수출탑을 수상한다.

유공포상은 (주)호원 양진석 대표가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며, (주)동희하이테크 이태희 대표, (주)태봉 권중성 부장이 대통령표창을, (주)대성포장산업 김선광 대표 등 3명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20명이 수상한다.

시는 오는 17일 라마다호텔에서 수출탑과 유공포상 수상자에 대한 전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자동차산업밸리 추진위 사단법인 전환 추진

위원장에 정찬용씨 선정

광주자동차산업밸리 추진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된다.

광주시는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사업을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7일 발족한 추진위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키로 하고, 최근 광주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발기인 대표 유영태 조 선대 교수를 비롯 정찬용 추진위원장 등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기업계 인사들

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 제정에 이어 정찬용 추진위원장을 사단법인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정찬용 위원장은 "제조업의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사회 각계의 저명 인사를 참여시켜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전략 수립, 완성차 및 부품업체 지역 유치활동,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여론수렴 등 지역 역량을 결집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선물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J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천연설탕 자연산 100%

음식을 비상책임보험 5억원 가입
H 현대해상화재보험

런칭 기념 2+1

- 시럽 프리미엄(750g) 28,000원
- 시럽 일반(750g) 22,000원
- 가루(1kg) 38,000원
- 고체(1kg) 36,000원
- 강황(500g) 15,000원

무료배송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강황의 효능

1. 치매예방
2. 당뇨 비만 등 성인병치료 예방
3. 관절염 치료 및 예방
4. 다이어트 효과
5. 항암효과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6. 폴리페놀 성분 / 아카시아 벌꿀의 20배 /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7배 / 비타민C,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